

당신은 100원어치 맘을 홀리고 200원 어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하진다면, 생활 하나하나에 부처님 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 천안 각원사 주지 법인 스님



문수 스님 추모 다례제에 참석한 지승 스님(사진 맨 앞)이 부도탑 가림막을 걸어내고 있다.

문수 스님, 스님...

법안·퇴휴 스님, “추모행사 형식적이다” 질타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지만 불교계가 4대강 반대를 외쳤던 스님 유지 실천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수 스님 선양사업회 준비위원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는 5월 30일~ 6월 4일을 문수 스님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중 조계사 마당 '가피'에서는 '생명평화 대화마당'이 매일 저녁 열렸다.

관련기사 11~12면
5월 30일 열린 첫 날 강연에서 법안 스님은 '문수 스님 소신과 그리고 1년'을 주제로 강연했다. 법안 스님

은 추모 1주기와 4대강 반대 활동에 소홀한 종단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법안 스님은 “소신 공양 1주기를 맞아 부도탑을 세우고 제막식을 한다. 하지만 1주기가 됐으니 시대적 흐름에 맞춰 행사를 진행한다는 인상이 강하다. 종단이 왜 이렇게 밖에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 스님은 “종생의 고통을 걱정하고 생명을 살리려했던 수행자의 보살적 원력이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 같다. 불교시민사회단체가 더 발전해 종단의 잘못을 강력히 지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퇴휴 스님도 종단의 실천

력 부족을 질타했다.

퇴휴 스님은 “오늘은 지난 1년간 문수 스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보고해야 하는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며 현재 심정을 밝혔다. 퇴휴 스님은 문수 스님의 유지 실천과도 일맥상 통하는 종단의 5대 결사에 대해서도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퇴휴 스님은 “전국에서 결의가 일어나고 종단의 뜻에 동참해 힘을 보태지만 목표가 달성되긴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추진 중인지 어리둥절하다. 종단의 명쾌한 대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식민지불교 청산해야 불교에 미래있다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불문연 봉축세미나서 주장



‘한국의 역사와 불교’를 주제로 진행된 발제에서 고려불교와 조선불교를 비교하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종교는 쇠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대 불교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일제 식민지 불교의 잔재와 이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1911년 6월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사찰령으로 구성된 본말사제도는 조선총독부가 통제를 위해 편리성을 위주로 편제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최 교수는 “사찰 주지는 산중공공에 따라 추대되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었으나 사찰령과 사법에 의해 주지에 사찰운영 권한이 집중되면서 본사주지들의 재산 축적과 처첩을 거느리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지들의 윤리적 타락은 친일 성향을 노린 조선총독부

의 불교정책과 사찰령에 기인한 것으로 교단 구조적 문제로 심화돼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러한 잔재를 청산해야 하지만 불교계는 종단 분규로 인해 그 정화여정이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종단 분규를 겪은 끝에 비구승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으로 정통성을 확보했으나 불행한 휴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비구승의 수적 열세는 정치권력과 법정 소송에의 지나친 의존, 급조승 양산 등 반불교적 행태로 이어졌고, 교단 자주성 상실, 간혹선 지상주의 및 교학연구 경시풍조 등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제의 핵심은 각 시대의 요구에 맞춰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경우는 새로운 불교교학과 실천 방법을 개발하며 자정노력을 추구했던 때로 끊임없는 자기변화의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적극적인 개혁의식을 통해 일제 식민지불교 잔재의 청산, 교단 운영의 구조 개혁, 파벌싸움 지향과 화합 승가 구성 등이 추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대장경 천년축전, 이운으로 시작

18~20일 해인사-조계사-개경포서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개최 100일을 앞두고 국민대통합을 기원하는 대장경 이운 행렬이 재현된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두관)는 6월 18일 합천 해인사에서 고불식을 시작으로,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대장경 천년 국민 대통합 기념식’, 20일 고령 개경포와 합천 해인사에서 대장경 이운행렬과 장경관전 봉안의식

을 봉행한다.

행사는 9월 23일~11월 6일 합천 해인사 일대 주행사장과 창원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리는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개막 D-100일을 기념해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코자 마련됐다.

19일 오후 1시부터 개최되는 ‘대장경 천년 국민 대통합 기념식’ 후에는 인사동과 종로 일대에서 대장경 이운 행렬이 진행된다. 행렬은

1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운행렬은 오후 2시 조계사를 출발해 인사동길, 종로2가, 청계2가를 거쳐 청계천로 광통교에서 종료된다.

대장경축전조직위원장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축전 개최 100일을 앞두고 대장경 천년의 가치와 문화,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되살리고, 서울-합천을 잇는 이운행렬을 통해 대장경 천년을 기념하고 대장경 축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해인사 출발은 역사 왜곡

강화 선원사 “해인사 것 1000년 아냐”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와 강화 팔만대장경이운보존회(회장 김경일)는 5월 31일 성명서를 내고 ‘〈태조실록〉에 팔만대장경이 강화 선원사에 147년간 보관되었다 1398년 선원사를 출발해 해인사로 옮겨 갔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이운 행사의 출발지를 해인사로 한 것은 명백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전통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원사는 “지금의 해인사 대장경은 재조대장경이다. 해인사 대

장경은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과는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선원사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가 이운 행사와 관련해 선원사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가 일방적으로 공문 내용을 취소하고 이운 재현의 출발장소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간단히 회에서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축전을 홍보하기 위해 이운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현충일, 사찰마다 추모법회 이어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 6월 3~4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또 12일에는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호국영령천도법회를 봉행한다.

7일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와 은평구정불심회는 북한산 진관사에서 제23회 호국영령과 불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하는 등 전국 사찰에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법회가 이어졌다.

이상연 기자

839호 CONTENTS

현장속으로 연꽃전문화체험행사 5



특집 · 문수 스님 1주기 추모 행사 11·12



기획인터뷰·본각 스님 여성지도자를 만나다 16·17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부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社告 ! 자비의 미얀마 돕기 dream 꿈
인구의 89%가 불자인 나라, 미얀마 불자의 희망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합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양곤 내인미얀마 건설중인 코리야기술중학교 지원 ■ 식수가 부족한 마을에 공동 우물 건설
■ 신부 출가 의식 지원 ■ 불자 어린이 학용품 지원 ■ 전담 가능한 물품 지원
● 후원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얀마문화원 · 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연간캠페인

국내 최초, 불교계 최초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출간!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품위 있는 선물!
Concise Buddhism Dictionary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명확하고 풍부하다.

● 불자 모두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김승동 편자(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178mm / 고급 사천 용지 사용 1,216쪽 / 4,950여 개 항목 수록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불교와 관련된 교리·사상·역사·인물·문화·문헌 등 불교도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항목 중심으로 뽑았다.
- 단어의 개념 설명이 매우 간결·명확·풍부하다.
-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 사이즈가 작은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천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중국·한국·티베트·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원시·부파·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사상·철학·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이 한 권만 있으면 중요한 불교용어는 물론이고, 불교교리와 사상,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까지 모두 해결된다.
-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발전합니다. 법문이나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을 하고 싶지만, 막상 “그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질문하지도 못합니다. 또 타인을 의식해서 질문하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오기도 전에 잊어버리기 일쑤!

구입 문의 민중사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